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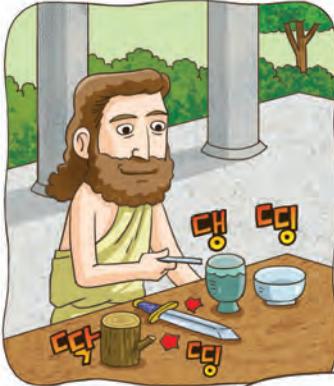
피타고라스, 화음을 발견하다



오늘따라 대장간 망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걸.



며칠 전에는 망치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?



음	도	레	미	파	솔
진동수	264	297	330	352	396



아! 두 음의 진동수를 분수로 만들어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, 분모와 분자가 모두 7보다 작으면 두 음이 잘 어울려 아름답게 들리는구나!



'도'와 '미'의 진동수를 분수로 만들면 $\frac{264}{330} = \frac{4}{5}$ 이니까 분모와 분자가 모두 7보다 작지요.

그래서 '도'와 '미'가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들리는구나.

음악 속에서도 수학을 찾을 수 있다니 신기해!



이 단원의 공부 되돌아보기	공부를 스스로 했나요?	상	중	하
	약분과 통분을 잘 이해했나요?			
	수학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서 공부했나요?			